

# 28주년 축하 집단 지성의 마당, 정론의 나침반 교수신문 28돌을 축하합니다

오홍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 대학교육의 공론장이자 의제설정자로 기능해주길



우리 대학교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공론의 장이 되어주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은 단순

한 교육기관 그 이상입니다. 미래세대 교육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도합니다.

21세기 초현실사회에서 전문화된 대학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대학을 통제하는 정부, 혁신을 거부하는 대학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전국국공립대학은 전국국공립 대학교수노동조합 설립,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개정, 정당한 국공립대학 교원 급여 및 수당 체계 개선, 국립대학 제도 개선 등 많은 거시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41개 회원교 1만8천 교수님들은 '교수신문'이 우리 대학교육의 공론장으로서 의제설정자로서 지속적으로 기능해주기를 응원합니다.

김용석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 어려운 시대에도 희망을 찾는 중재 역할 기대



한 후 교수신문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발전을 거듭해 온 것에 대해 사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의 전신인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의연합회가 1992년 교수신문을 창간하는데 일조

은 자랑스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28주년이 교수신문이 창간할 때의 초심을 잊지 말고 되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언론기관으로서 교수신문은 이 시대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하고 방향을 고민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정론지로서 대학문제를 직시하고 불법과 비리에 대해 정의롭게 말해야 하며, 대학이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곳을 알려주는 중재의 역할을 잘해 주길 사교련은 희망합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국가와 국민이 대학을 보고 지혜를 찾고 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희망을 찾는 그런 곳이 되도록 교수신문이 중재의 역할을 잘 해 주기를 사교련은 요구해 봅니다.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

## 교수신문만의 취재, 울림을 가진 보도 기대



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래도 다가오는 미래, 우리에게 사회와

산업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고등직업 교육이 중요한 교육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큰 흐름 속에 우리 전문대학은 국민과 함께 현실을 고민하며 실현 가능한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문대학이 더욱 성숙한 비전으로 능력 중심 사회를 열어가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수신문>이 공감의 영역을 확대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

어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등 직업교육 정책 실현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신문>의 꾸준한 관심과 교수신문만의 깊이와 울림 있는 심층보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학의 지성과 감성을 어우를 수 있는 <교수신문>이 현 교육계와 대학사회 전방의 뉴스들을 폭넓고 빠르게 취재하는 참 언론으로 더욱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대학사회와 출판산업의 동반 발전에 큰 역할 해주기를



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수신문' 창간 28주년을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사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교수신문'은

대학과 교수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보와 발전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와 같은 큰 질문부터, 재난지원금의 선택적 지원이 맞는지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질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고민하는 것은 상당 부분 대학

사회와 그 구성원의 역할입니다. 대학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교수신문이 대학사회와 출판산업의 동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 출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교수신문'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수신문'의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는 그릇이 되길



대학의 자율성과 혁신을 이끈 교수신문 창간 28주년을 국립예술대학으

로서 창의적 예술가를 양성하고 있는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에게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1992년 국립예술교육기관으로 문을 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역시 올해 개교 28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최근 세계 유수 음악콩쿠르 및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 문화예술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교수신문

도 28년간 대학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지켜보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정책을 견인하는 정론지로서 그 소임을 다 해왔습니다.

그동안 대학사회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대학교육의 발전을 견인한 교수신문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국 지성을 이끄는 교수신문의 발전과 대학의 보다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배덕효 세종대학교 총장

## 대학이 경제발전과 국민 위해 더욱 성장하도록 조언 기대



공, 그리고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신문이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 학문의 자유, 학술정보 제

공, 그리고 대학문화 창달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

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국가 경제발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수신문도 국가 발전과 대학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도 이공계 교수진이 전체 교수의 65%입니다. 창의적 연구와 차세대 선도학과를 육성해 온 결과 대학평가에서 국내 최고의 성과를 보여

세종대는 세계 최고의 대학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실시한 '2020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0위에 올랐습니다. 세종대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신문은 세종대학을 포함한 국내대학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을 위하여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 고등교육에 대한 심층 논의와 대안 제시 역할 기대



다. 국내외 시대 변화와 학문적 흐름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그것을 대학교와 고등교육 현장에 전파해 온 교수신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대학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 라는 시대적 과업을 앞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ICT 특성과 대학인 광운대학교는 '광운만의 기업가정신'을 통해 캠퍼스 전체를 창업 생태계로 조성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

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혁신의 노력이 큰 힘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대학교와 고등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하는 교수신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교수신문이 우리 대학교와 고등교육의 최전선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박노준 안양대학교 총장

## 대안과 정책으로 차별화되는 정론의 힘



동반자인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서도 학문과 지식의 최후 보루인 대학교와 그 대학의 수호자 교수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며 보다 나은 삶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였지만, 지금은 예기치 않은 재난 앞에서 다시 인간과 기술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맞이하는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큼니다. 단순한 대학의 이슈와 교수사회의

등정이 아닌 심층 깊은 기획과 수준 높은 기사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학교와 교수사회의 등불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위해 가장 큰 소임을 맡아 왔던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학의 가치와 교육의 소중함을 수호하여 온 지난 세월의 영광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Jerry Nairns CEO/eWorldEditing.com, Inc.

## 연구자의 다양한 의견,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이 되기를



의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기관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교수신문은 학계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에게 영어 원고 편집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영어 논문 작성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에 전념하시는 많은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eWorldEditing은 끊임

없이 훌륭한 교정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교수신문이 한국의 고등교육의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교수신문이 한국 최고의 과학자 및 연구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수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김일묵 삼육대학교 총장

## 대학들의 흠어진 목소리 대변인 역할 하길



의 위로를 전하였으며 대학 인권의 이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견인해 온 교수신문의 창간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8년 동안 대학의 집단지성으로 사회적 화두를 이끌어 내어 때로는 사회에 경종을, 때로는 위로를 전하였으며 대학 인권의 이슈

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냄으로써 대학교와 사회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왔습니다.

언필칭 고등교육의 위기, 재정위기, 학령인구 감소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위기가 공론화된 이 시대에 공론의 장인 언론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대학들이 발등에 떨어진 위기의 불을 끄느라 각자도생식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이때에 교수신문이 여러 대학들의 백인백색 이론과 방법들

을 모아 공론(公論)으로 만들어 내고 분산된 노력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수신문이 대학사회의 흠어진 소리들을 모으는 대변인으로서 앞으로도 오랜 세월 감당해온 이러한 역할들과 다져온 입지와 영향력들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해 대학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교수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